

“골든타임을 지켜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 마지저수지서 비상대처 훈련

2025-05-21 14:49 입력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는 법원을 직천리 마지저수지에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5.21 /농어촌공사 제공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는 21일 법원을 직천리 마지저수지에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파주시, 파주소방서, 파주경찰서, 민간 긴급동원업체 등이 참여한 비상대처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방의 월류 및 붕괴 우려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4단계(주의·경계·심각·종료)로 나누어 진행됐다.

단계별 훈련은 집중호우에 따른 1차 상황전파를 시작으로 긴급 주민대피에 이어 월류 및 붕괴로 인한 임시 복구작업 등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이 펼쳐졌다.

전홍성 지사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위급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실전 같은 훈련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는 법원읍 직천리 마지저수지에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5.5.21 /농어촌공사 제공

한편 농어촌공사는 2011년 7월24~28일 1일 최대강우량이 200년 빈도(391.01mm)를 훌쩍 넘는 416mm까지 기록하면서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마지저수지 등 3개 저수지

붕괴가 우려되자 하류지역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인근 학교로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후 오후 9시께 마지저수지 비상 수문을 개방했으며, 방류된 물이 웅담1·2리 등
눌로천 하류지역으로 쏟아지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문화재와 주택 50여 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주민들은 농어촌공사가 폭우 전 저수지 물을 충분히 방류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수문을 여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고, 농어촌공사는 ‘200년 빈도를 넘는
폭우에 하류 쪽 하천 폭이 좁은 게 원인’이라고 맞서 한동안 ‘인재(人災)-천재(天災)’
논란이 일었다.